

# 신뢰받는 체육회, 사랑받는 체육인으로 '비상'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한 체육회장이 정부 방침에 따라 민선체육회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남원시체육회도 이를 바탕으로 초대 민선 체육회장으로 양심목 회장이 지난 1월 15일 취임해 약 150일이 지났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힘찬 도약을 위한 행보를 통해 합리적인 스포츠 도시 남원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6월 개최될 예정이던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취소되는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며 업무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남원시체육회는 양심목 회장 취임과 함께 ▲신뢰받는 체육회, 사랑받는 체육인으로의 비상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국으로 재탄생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2022년으로 연기된 전북도민체전 준비 만전 ▲올해 계획한 각 대회 차질 없이 준비 등의 5개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남원시체육회 임직원들은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각 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심목 신임 회장 취임식

권한·성과 종목단체와 체육인들에게 돌려줘 체육인들로부터 신뢰도 높아

종목단체와 유기적 업무지원 시스템 마련

춘향골체육공원에 8개 종목 체육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내년까지 완비 2022년 도민체전 개최 결정

올해 계획한 국제대회 등 개최 차질없이 준비 중

## ▲신뢰받는 체육회, 사랑받는 체육인으로 거듭

양 회장은 새로운 체육회 임원진을 개편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다양성을 보였으며, 이환주 남원시장을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생활체육 42개 종목단체와 23개 읍면동체육회와의 열린 소통시스템을 마련,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체육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소통이 생방향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체육회는 의무와 책임은 다 하면서 권한과 성과는 종목단체와 체육인들에게 돌려주는 배려를 통해 체육인들로부터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국으로 개편

남원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각종대회와 다양한 사업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 할 일은 많은 반면, 사무국 행정 인력은 많이 부족한 실정에 의해 매년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체육회의 오랜 숙원 현안을 해결했다.

사무가능은 1팀 14명인 반면 정원은 6팀 18명, 김제는 3팀 18명으로 비교적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종목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는 등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보다 체계있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 ▲공공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

모든 시민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위해 춘향골체육공원에 26억 원을 투입해 8개 종목의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완공한 테니스장 4면을 비롯해 실내수영장 6면, 인조잔디 축구장 1면, 점천후 족구장 3면, 점천후 게이트볼장 4면, 실내탁구장, 점천후 인라인롤러 동경기장, 인라인로드경기장 등은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내배드민턴경기장은 설계단계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 ▲2022년으로 연기된 전북도민체전 준비 만전

코로나19 재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도민체전



대의원 총회



자문위원단 간담회

이 불가피하게 2022년으로 연기 되었으나, 남원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2021년까지 완비하고 다음 해인 2022년도에는 보다 성대하게 도민체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더 완벽하게 체전을 준비하는 등으로 스포츠도시남원의 면모를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올해 계획한 각 대회 차질 없이 준비

각종 대회가 코로나19로 순연되고 있지만, 남원시체육회는 올해에 계획한 국제대회(3종목), 전국대회(16종목), 지역대회(19종목), 참가대회(4건), 전지훈련 등을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생활체육교실사업 18종목을 비롯해 주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6개 토요일스포츠프로그램 운영, 10개 종목의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7개소의 체조광장사업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 ▶ 인터뷰 - 양심목 회장

###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남원시체육회 양심목 회장은 “시 최초의 민선 체육회장인 만큼 열정과 최선을 다 한다는 각오로, 남원체육이 발전하고 ‘스포츠 도시 남원’이라는 별칭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체육회 전 임직원들은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체육회장 취임 약 5개월이 지난 양 회장은 체육회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에 양 회장은 “30여년의 행정공무원 생활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회, 시민들이 만족하는 체육회, 시민들이 즐겨워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